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Cool Head Warm Heart

경제학부 소식 제15호 2006년 7월



CONTENTS



신임 학부장 인사말 04

이영훈 교수

동문 기고 06

조신

SK텔레콤 전무/전략기획부문장

경제학부 소식 08

- 교무
- 학생
- 입시
- 행사

학생 기고 14

- 박강우(대학원 박사과정)
- 이선우(경제학부 4학년)

경제학부 동아리 소개 18

법경제학 연구회(Law & Economic Society)

신|임|학|부|장|인|사|말|



이영훈
경제학부 교수

선배 후배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2년간 경제학부의 학부장을 맡게 된 이영훈 교수입니다. 경제학부는 전임교수만 34명에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합하여 1천 명이 넘는 대규모 학부입니다. 그런 큰 학부의 교육과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학사행정을 원활히 하고 교육과 연구의 여건을 개선해 가는 것이 학부장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만, 동료 교수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 강원도를 비롯한 중부 내륙지방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군요. 워낙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퍼부어진 관계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대로 공사와 관리의 소홀로 인한 인재인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로가 토사로 막히고 지반이 무너져 내린 것은 처음부터 설계가 불충분했거나 날림공사의 탓이 아니겠습니까. 감리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면서 눈을 감아주고 대가를 챙긴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일을 보면서 날림공사와 부정부패는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인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도로의 보도블록을 깔거나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사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컨대 보도블록을 깔 때 조금만 시일의 여유를 두어 노면을 충분히 다졌다면 칸 지 얼마 되지 않은 보도블록이 이러 저리 흔들리고 빠지고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여유를 두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와도 노면에 함몰이 생겨 그 위에 놓인 보도블록이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마저 부정부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들의 성의나 심성의 문제일까요.

아스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도심의 아스팔트가 얼마나 울퉁불퉁 요철이 심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스팔트라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일본의 노면이 완벽히 평평한 아스팔트를 달린 다음, 저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아스팔트 노면의 평활도에 비례한다는 가설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역시 요철이 심하더군요. 그런 시시한 가설을 검정할 수고까지 할 필요야 없겠지만, 선·후진국 간에 그러한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주변에서 무성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선진국 진입의 문제를 소득 3만 불의 양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득 3만 불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우리 인간들의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수준의 발전은 아무리 ‘빨리빨리’를 자꾸 외쳐봐야 별 소용이 없는, 몇 세대에 걸친 성의와 노력이 쌓여야 겨우 확인이 가능한, 느리게 움직이는 역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 때문에 잠시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제학부의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학부는 2006년 3월부터 7년간 2013년 2월까지 정부로부터 연간 8억의 지원을 받는 BK21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국제경쟁력 있는 학문의 후속 세대를 양성한다는 장기적인 목표 하에서 자격을 갖춘 소수의 대학을 선발하여 대학원생에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경제학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단을 구성한 다음, 차후 7년간 교수의 연구역량을 50% 증진하고, 대학원생의 연구실적을 400%를 강화하여

경제학부 BK21 사업단 발족

미국 내 10위권의 경제학부로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UCLA 경제학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간 3-4명의 교수요원을 국내 대학에, 6-7명의 고급 연구 인력을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기관에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 같은 사업단의 목표와 실천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아 차후 7년간 정부로부터 위와 같은 적지 않은 금액의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연간 8억 원의 지원금 가운데 절반인 4억 원은 대학원생의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박사과정은 월 90만원, 석사과정은 월 50만원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는 정운찬 총장 재임 시절의 업적으로서 '강의 및 연구조교'라 하여 교수 1인당 1명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대학원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장학제도가 시행 중입니다만, 금번 BK사업의 취득으로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거의 전원 상당한 수준의 월정 장학금을 생활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생에게 5할이 지급된 다음, 나머지 2할은 박사후과정생이나 계약교수를 채용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할은 '국제협력비'라 하여 해외의 유명한 연구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갖거나 대학원생이 국제학술대회에 나가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여비를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교수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는 그런 명목의 지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필요하다면 BK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나 경제단체와의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비를 조성한 다음, 그 돈으로 교수의 연구비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실제 이 사업은 교수들이 열의를 가지고 대학원생과 함께 논문을 쓰고 함께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경제학부의 BK사업단은 경제 현장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임 학부장의 인사말에 돈 이야기가 나와 구차스럽게 되었습니다만, 경제학부가 최근 발족시킨 BK사업단을 설명 드리다 보니 글이 그렇게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를 해량해 주시고 관심을 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6년 7월 17일 제현절
이 영 훈 드림

약 력

- 1. 학력
경제학 학사, 1978,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0,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1985, 서울대학교
- 2. 경력
2002년 7월~2006년 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84년 9월~2002년 6월 : 한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92년 8월~1993년 7월 : 일본 경도대학 경제학부 외국인학자 경제사학회 회장 역임
한국고문서학회 회장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 3. 주요논문 및 저서
이영훈 저,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1998
이영훈 저,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출판부, 2004
이영훈 외, 『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 해남, 2005



조 신

SK텔레콤 전무/전략기획부문장

〈경제학부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한 동문들이 많이 계신데도 제가 글 쓸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아마도 대학, 연구소, 기업체에서 모두 일해 본 조금은 색다른 저의 경험을 재학생들에게 들려주기를 바라는 편집자의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77년에 서울대에 입학하여 '80년대를 미국 유학과 짧은 교수 생활 등 대학에서 보냈고, '90년에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에 들어가 연구자로, 그리고 정책 조언자로 10년을 보낸 후, '99년 말에 SK텔레콤으로 옮겨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의 경제학 전공자들은 유학을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대세여서, 90여명 동기생 중에서 반 정도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정도입니다. 당시는 사회계열로 입학하여 2학년 때 사회대, 법대, 경영대 중에서 선택하던 때였는데, 상대적으로 학구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학과를 선택한 측면과 당시에는 관직에 대한 선호가 낮은 편이었다는 점이 이러한 경향을 설명해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엔 너무 많은 학생들이 고시 준비를 한다는 교수님들의 우려 섞인 말씀을 듣게 되는데, 당시에도 정운찬 선생님께서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다들 공부만 계속하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남들과 달리 민간 부문으로 가면 더 큰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90년대에 독점산업에서 경쟁적인 산업으로 바뀌어간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을 연구할 기회를 가진 것은, 산업조직론을 전공한 경제학자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실험이 불가능한 경제학에서 시장구조(structure) 변화에

따라 행동(conduct)과 성과(performance)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할 수 있는 실험실적 환경이 주어진 셈이지요. 학생시절에는 다소 관념적으로 느껴지던 경제학 이론이 현실분석에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통신과 같은 자연독점 산업에서는 정부가 진입/가격규제를 통해 자원배분을 담당해 왔는데, 경쟁도입은 자원배분 기능이 점차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넘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에서 완전경쟁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우리나라는 개별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이행기에 시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정부 만능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완전한 시장에 대한 환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완전한 정부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99년 말에 SK텔레콤으로 옮기기로 한 결정은, 연구자들이 기업체로 경력변화를 한 사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 생활에 익숙해지고 연구주제 또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됨에 따라, 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증가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이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업체로 옮긴 후, 주변 사람들로 부터 어떤 직장이 제일 좋더라, 회사와 학교/연구소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더라, 일반 기업에서도 경제학이 도움이 되더라는 등의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제 경험에서 미루어 보면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위험을 즐기는 삶을 선택하라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자유로움을 즐겼다고 한다면, 연구소에서는 좋은 연구 환경과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뿌듯함이 있었고, 기업에서는 긴장감과 성취감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좀 더 적합한 직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가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경제학부 학생들이 직장을 찾는데 있어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개인적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거니와, 자신의 인생관에 비추어 자부심이 넘치는 선택인지 자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업체로 옮긴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회사는 “정치”가 난무하고 연줄이 없으면 출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같이 물정모르는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업으로 옮긴 후에, 어떤 조직에서건 communication, coordination, 그리고 cooperation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덕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연줄이 없고 정치를 몰라도, 조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 기업이 다른 조직에 비해 효율성을 중시하고 성과중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점들이 가져다주는 불안감보다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한다면 기업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경제학이 좋은 학문이라는 점을 저는 기업체로 옮긴 후에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적 통찰력은 산업의 향후 추세를 전망하는데 유용한 틀일뿐 아니라, 구체적인

경영전략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도 훌륭한 안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학생 여러분도 경제학의 이론적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추세가 융복합화 되어 가는 것을 감안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착실하게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인문학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전략, 정책적인 의사결정에도 많은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서점에 넘쳐흐르는 경영관련 서적이나 자기계발서 중 상당수는, 이론적 토대 없이, 때로는 상충되는 수많은 사례를 열거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독서에 있어서 지나치게 유행을 따르기 보다는 해당 분야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책들을 읽기를 권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주어질 뿐 아니라, 다른 것을 시도하는데서 오는 새로움과 자부심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도 남들이 무엇을 하느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기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에 따르는 위험을 즐기는 삶을 살라는 권고로 글을 맺으려 합니다.

약 력

1. 학력

Washington Univ. 경제학과 (박사), 1989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82

2. 경력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마케팅부문장/경영전략실장, 2000-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90-1999
Illinois State Univ. 경제학과 조교수, 1988-1989

NEWS

● 교 무

1) 교수동정

- 김세직 신규임용(교수) (2006. 2. 1)
- 김재영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위촉 (2005. 11. 1 - 2006. 10. 31)
- 장용성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위촉 (2005. 11. 1 - 2006. 10. 31)
- 정기준 정년퇴직 (2006. 2. 28)
- 정영일 정년퇴직 (2006. 2. 28)
- 정기준 명예교수 추대 (2006. 3. 1)
- 정영일 명예교수 추대 (2006. 3. 1)
- 이준구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2006. 3. 2)
- 김선구 교수로 승진 (2006. 4. 1)
- 이영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2006. 3. 27 - 2008. 3. 26)
- 경제학부장 겸무 (2006. 7. 16 - 2008. 7. 15)
- 경제학부 BK21 사업단장 겸무 (2006. 7. 12 - 2013. 2. 28)
- 김대일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겸무 (2006. 4. 1 - 2008. 3. 31)
- 김재영 재정위원회 위원 위촉 (2006. 6. 1 - 2008. 5. 31)
-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겸무 (2006. 7. 16 - 2008. 7. 15)
- 김완진 교무처장 겸무 (2006. 7. 23 - 2008. 7. 22)
- 정운찬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 (2006. 7. 20)



▲ 정영일 교수님 정년퇴임식



▲ 정기준 교수님 정년퇴임식



▲ 이준구 교수님 서울교육상 수상

2) 200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일자 : 2006. 2. 24 (목)
- 학위수여자
 - 박사 : 주 현 외 2명
 - 석사 : 김혜인 외 21명
 - 학사 : 주성훈 외 157명

3) 경제학부 BK21사업단 선정

- 사업단명칭 : 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
- 참여 인원 : 경제학부 교수 24명, 대학원생 54명(사업단장 이영훈 교수)
- 사업단목표 : 미국 상위 11위권 대학 수준의 교수진 연구역량 제고
미국 상위 20위권 대학 수준의 박사과정 연구실적 강화
- 지원 혜택 :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7년간 매년 8억원의 지원을 통해,
 - 박사과정 18명 : 매월 90만원 지급
 - 석사과정 36명 : 매월 50만원 지급
 - 이외 해외연수, 해외인턴쉽 등의 기회제공
 -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채용을 통한 신진연구인력 지원

NEWS

● 학 생

1) 2006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생 내역

- 학부생 450명 중 274명 수혜
- 대학원생 159명 중 39명 수혜

2) 2006학년도 1학기 교외장학금 내역

- 학부생 70명
- 향상장학재단 18명

학 번	성 명	금액 (단위 : 원)
2001-10753	박 정 규	1,858,000
2001-10796	오 진 훈	1,858,000
2001-10806	윤 참 나	1,858,000
2003-10425	김 새 암	1,858,000
2003-10465	김 준 영	1,858,000
2003-10670	이 수 련	1,858,000
2003-10777	조 성 태	1,858,000
2001-10717	김 지 환	2,051,000
2001-10774	성 진 규	2,051,000
2001-10791	염 철 민	2,051,000
2001-10804	윤 일 광	2,051,000
2004-10495	박 현 규	2,051,000
2004-10517	소 연	2,051,000
2004-10571	유 새 롬	2,051,000
2004-10606	이 은 경	2,051,000
2005-10314	곽 윤 선	2,051,000
2005-10468	오 광 석	2,051,000
2005-10615	홍 정 민	2,051,000
합	계	35,567,000

● 입 시

1) 2006학년도 대학원 후기 모집

- 일 자 : 2006. 5. 19 (금)
- 석사과정 23명 합격 (연구자과정 19명, 전문가 과정 4명)
- 박사과정 3명 합격

● 행 사

1) 제3회 서울대-동경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일 자 : 2006년 5월 23일(화)
- 주 제 : Current Issues in Economic Policy



2) 한국 계량경제학회 창립 20주년 기념학술 심포지엄

- 일 자 : 2006년 7월 19일(수)
- 주 제 : 경제이론과 계량경제학의 최근연구동향

NEWS

3) 김태성 기념 세미나 개최

경제학부에서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2004년 9월부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2006년 7월 사이에도 국내외의 여러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모시고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최되었던 세미나의 일정 가운데 일부입니다.

- 3/2 (목) 16:30~18:00 Walter Bossert 교수 / Montreal University
Infinite-horizon choice functions (coauthored with Geir Asheim, Yves Sprumont, and Kotaro Suzumura)
- 3/16 (목) 16:30~18:00 Richard Steckel 교수 / Ohio State University
Understanding Social Performance in the Distant Past
- 4/1 (토) 16:30~18:00 Wolfgang Hardle 교수 / Humbolt University
Inhomogeneous Dependency Modelling with Time Varying Copulae
- 4/27 (목) 16:30~18:00 Hide Ichimura 교수 / University of Tokyo
Characterization of the Asymptotic Distribution of Semiparametric M-Estimators
- 5/4 (목) 16:30~18:00 김창진 교수 / 고려대학교
The Beveridge-Nelson Decomposition and Impulse-Response Analysis in the Presence of Markov-Switching
- 5/18 (목) 16:30~18:00 Cheng Hsiao 교수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ecriminalization and Marijuana Smoking Prevalence: Evidence from Australia
- 6/1 (목) 16:30~18:00 Aki Matsui 교수 / University of Tokyo
A theory of International currency: Competition and Discipline
- 6/9 (목) 16:30~18:00 이석배 교수 / University College London
Nonparametric Instrumental Variables Estimation of a Quantile Regression Model

- 6/14 (수) 16:30~18:00 박준용 교수 / Rice University
Spatial Analysis of Econometric Time Series
- 6/15 (목) 16:30~18:00 Kei Mu Yi 박사 / FRB of Philadelphia
Vertical Specialization and the Border Effect Puzzle
- 6/19 (월) 16:30~18:00 John Rust 교수 / University of Maryland
Models of Bargaining and Price Determination of Residential Real Estate, with and without Real Estate Agents
- 7/4 (화) 16:30~18:00 Taisuke Otsu 교수 / Yale University
"Large deviation optimal moment selection based on empirical likelihood."



경제학도는 이기적인가?



박 강 우
대학원 박사과정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의 다음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에 밥을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잇속 챙기기 덕분에 밥을 먹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애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단지 무엇이 그들에게 이익이 될 것 인가만을 말할 뿐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경제주체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국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상태를 달성하게 된다는 생각은 경제학의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며 이것을 정식화한 것이 다름 아닌 후생경제학 제1정리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마 어떻게 보면 사회 과학 전반에 걸쳐 인간의 이기심을 가장 찬양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배운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과연 경제학도는 정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가?

Marwell and Ruth(1981)는 재미있는 제목의 “Economist Free Ride: Does Anyone Else?” (경제학자들은 무임승차를 한다.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라는 논문에서 경제학전공자(구체적으로는 위스콘신 대학원의 경제학 전공자 1학년) 및 비경제학전공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게임을 실행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우선 참가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을 돈을 주고 이를 ‘공공 계정’과 ‘개인 계정’에 나누어 배분하도록 한다. 이때 개인 계정에 들어간 돈은 동일한 금액을 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참가자들이 공공 계정에 예금한 돈은 모두 모아져서 일정한 배율(1보다 큰)만큼 커지고 그 결과를 참가자 전원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의 선택은 모든 참가자가 전액을 공공계정에 넣고 불어난 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굳이 게임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최적 전략은 전혀 기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부한 결과로 나오는 수익을 받는 것, 말하자면 무임승차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초기금액이 1000원이고 공공계정에서 금액이 2배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기 쉬운 것이다).

실험 결과 비경제학 전공자들은 평균적으로 초기 금액의 약 절반정도(정확히는 49%)를 공공계정에 넣은 반면 경제학전공자들은 초기금액의 약 20% 정도만을 공공계정에 예금하여 좀 더 무임승차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한편 이러한 실험이 끝나고 난 후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질문을 하였다.

1. 공공계정에 얼마를 배분하는 것이 ‘공정(fair)’한가?
2. 배분액을 결정할 때에 이러한 ‘공정성’을 감안하였는가?

첫번째 질문에 대해 비경제학 전공자들은 75%가 ‘절반 혹은 그 이상’, 25%는 ‘전부’라고 대답하였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반해 경제학 전공자들의 반응은 ‘요약하기 힘든(?)’ 것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보면 왜인지 알 수 있다.

‘1/3이상의 경제학도들이 얼마가 공정한가에 대해 대답하기를 회피하거나 혹은 매우 복잡한 그래서 유형화하기 힘든 대답을 하였다. 아마도 이 게임에서의 ‘공정성(fairness)’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들 그룹에게는 낯선(alien) 것으로 보인다. 답변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조금 혹은 전혀 기부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더구나 경제학 전공 대학원생들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비전공자의 절반정도 수준만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Carter and Irons(1991)는 역시 도전적인 제목 (“Are Economists Different, and If So, Why?”)(경제학자는 남들과 다른가? 그렇다면, 왜?))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최후 통첩게임’을

실시하고 경제학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한 바 있다. 참가자는 2인이고 한명은 '제안자' 다른 한명은 '응답자'의 역할을 한다. 처음 일정금액의 돈(여기서는 10\$)을 제안자가 받으면 제안자는 이중 얼마를 응답자에게 제안할지를 결정한다. 제안자가 금액을 응답자에게 제안하면 응답자는 이를 수용할지를 결정하고 수용하면 응답자는 제안된 금액(x)을, 제안자는 나머지 금액($10-x$)을 가지게 된다. 만일 제안을 거절하면 금액은 사회자가 가져간다.(즉 양쪽 다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게임의 최적전략은 제안자는 제안할 수 있는 최소의 금액을 제안하고 응답자는 상대가 얼마를 제안하든 무조건 수락(0원 보다는 나으므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최적전략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비경제학 전공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제안자인 경우에는 4.66\$ 즉 약 절반 정도를 제안하고 응답자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최소 2.44\$ 이상인 경우에만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반해 경제학 전공자의 경우는 제안자인 경우에는 평균 3.85\$만을 제안하고 응답자로서는 최소 1.7\$ 이상인 경우에 제안을 수락하였다. 말하자면 경제학 전공자들은 비전공자에 비해 인색한 제안을 하였고 상대가 다소 자신에게 불리한 제안을 한 경우에도 최적전략에 가깝게 행동하여 상대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난 가끔 스스로 위의 게임들을 해보는 버릇이 있다. 그리고는 자문한다. 난 얼마나 이기적인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 선 우
경제학부 4학년

4월이 한참 지나서까지 쌀쌀하던 날씨가 언제쯤 풀리는가 싶었는데 어느덧 햇살이 너무나도 밝게 비치는 날씨가 줄곧 이어지고 있다. 교내 여기저기에도 앙상한 벌거숭이 나무들 대신 갖가지 색의 꽃들과 짙은 녹색의 잎들로 풍성한 나무들이 따사로운 햇살을 비추며 캠퍼스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다. 뒤늦은 봄기운에 취해 주위를 둘러보다 보면 문득 대학생활을 향해 첫발을 내딛던 3년 전 봄 무렵을 떠올리게 된다. 뒤늦은 합격자 발표를 통해 합격 사실을 확인하고 이상하게도 담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나도 서울대 생이다.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경제학부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냥 행복해하며 보냈던 2월. 고등학교 때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묵은 지난날들을 청산하기라도 하듯 한차례 호된 병치레를 하고 맞이한 3월의 입학식. 그리고 그와 함께 시작된 꿈에 부푼 나의 대학 새내기 생활.....

대학생활을 시작하던 당시 나의 가장 큰 기대는 캠퍼스의 낭만도 동아리 활동의 즐거움도 아닌 공부할 수 있는 자유였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과목이라도 입시를 위해서는 억지로 공부할 수 밖에 없었고 다행히 그런 일들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해 내어 사람들이 그토록 동경해 마지 않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러한 강제적인 학업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대학에 가면 내가 원하는 전공 위주의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러한 자유를 얻기 위한 당장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다고나 할까..... 그리고 입시의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마침내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까지 나에게 학업의 목표는 ‘대학’, 그 중에서도 특정 소수의 소위 ‘일류대’였다. 물론 입시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두운 방으로부터 바깥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출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문을 열어야 하듯이 진정한 학업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는 대학

이라는 좁은 열쇠 구멍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빛 하나만을 바라보고 무작정 달려왔고 이런 나에게 서울대 입학은 그 빛을 만들어 내는 보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한걸음 나아감을 의미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지금 이처럼 나름대로 학문의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던 나의 대학생활을 돌아켜 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 무엇보다 공부를 그다지 즐기며 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후회가 된다. 입학 후 첫 세 학기 정도는 나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학문의 자유를 만끽하며 평소 흥미를 가지고 있던 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기타 교양과목을 들으면서 뭔가 배워나간다는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학기를 거듭하면서 언제부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학점의 압박감에 시달려 시험을 위한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공부는 나에게 따로 시간을 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종의 ‘일’이 되어 버렸다. 다행히 공부에 완전히 흥미를 잃어 나의 생활과 학업이 완전히 격리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비해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간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그 결과 나에게 여러 이론은 교과서 속에만 존재하는 암기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이 갖추어야 할 현실과의 연계성을 나는 너무도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 나는 학자로 치면 상아탑 속에 갇혀버린, 이론은 잘 외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세계에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비 전공자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사이비 경제학도가 되어버렸다.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였을까? 무엇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1학년 2학기 경제원론2 시간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종종 떠오른다. “너희는 왜 그렇게 학점에 연연해 하나”고..... 그 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무엇 하러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나는 것으로 받아들여 경제학부 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선생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의아해 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교수님께서도 학점에 연연해 하다 보면 학문이 일이 되고 결국 흥미를 잃게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우쳐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은 퇴임하시고 계시지 않는 또 다른 한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무엇이 되었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잘하는 일을 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나는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을 오히려 내게서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대학 생활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후회를 통해 내가 한층 더 자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시행착오를 통해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존재이니까……

대학 입학 몇 년 전부터 경제학을 전공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대학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공간이었다. 물론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범위와 규모를 생각해 볼 때, 학부생으로서 배운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공 분야의 심도 있는 공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어느 정도 경제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좀더 공부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학문적으로 한층 성숙해져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면…… 졸업을 앞두고 지난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는 요즘 내게 부쩍 와 닿는 시의 한 구절이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지난 일에 대해 후회하게 마련이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졸업을 앞두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을 잊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활기찬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LE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법경제학연구회 LES(Law & Economics Society)



이 서 정
경제학부 4학년

남은 퍼즐의 한 조각, 당신의 열정으로 채워주세요

“대상 수상팀 발표가 나는 순간 LES의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공중으로 날아 올랐습니다. 참가팀 중 유일하게 경제학부생들로만 구성된 LES가 올해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대회가 끝난 후 LES가 어떤 동아리냐는 질문을 부쩍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LES의 정식 명칭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법경제학연구회 LES(Law & Economics Society)입니다. 경제학부에서 마음이 맞는 학생들이 모여 제2회 대학생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부터 참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3회 대회와 작년 4회 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상승 선생님의 산업조직론 과목을 수강하는 대회 참가 학생들을 주축으로 2005년에 정식으로 동아리가 결성되었습니다. 경제학부나 사회대 내의 다른 동아리들에 비하면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젊은 동아리인 만큼 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의공정위 대회 참가 학생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인 만큼, 가장 큰 활동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주최하는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 학기에 4-5회 정도 정기적으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등에 관련된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소규모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중국 칭화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과 3박4일 정도의 일정으로 연합세미나를 해왔는데, 지난 겨울방학 때는 칭화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해서 중국의 독점규제정책과 이동통신시장의 발달 등에 대해 발표하고 열린 토론을 벌였으며, 이번 여름 방학에는 LES가 칭화대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경제학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LES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02학년부터 신입생들이 사회과학계열로 입학하기 시작하면서 3학년, 4학년이 되어도 경제학부 선후배들이 별로 없다는 후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LES에서는 무려(?) 98학번 선배님의 진심어린 조언에서부터 파릇파릇한(?) 04학번의 활력까지 다양한 경제학부생들의 매력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아리들과 달리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몇 달 동안 하나의 주제를 놓고 무수히 많은 밤을 지새야하는 모의공정위 출전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 덕분에 더욱 두터워진 정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대학생들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가상의 사건을 경쟁법과 경제학 등의 논리를 적용시켜 풀어나가 봄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대에서 개설되는 경쟁법 관련 수업이나 경제학부의 산업조직론 등의 수업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법’에 관한 내용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서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은 대부분 법과대학 팀들입니다. 그러나 독과점시장의 폐해 시정,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등의 주제는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경제학부생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국 13개 참가팀 중 유일한 경제학부팀인 저희가 3회 연속 대상을 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대회에서 저희는 “(주)한국텔레콤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모두에게 생소하리라 짐작되는 IPTV(Internet Protocol TV)라는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가 도입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경쟁의 제한과 효율성 제고의 문제를 다루어본 것입니다. 대회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모두들 막막함과 부담감을 느껴 동아리 활동이 전공 9학점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었지만, 준비를 해나가면서 수업시간에 막연하게만 느꼈던 개념들,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이나 사중 손실(deadweight loss) 등을 직접 계량화해서 수치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에 한 걸음씩 도달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전공 9학점에서 모두 A+를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을 다루게 되면서 공대까지 가서 청강을 하고 KT와 하나로텔레콤 등의 통신회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IT 관련 지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LES가 성공적인 동아리로 자리

잡고, 모의공정위 경연대회에서 3회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뒤에는 지도교수인 이상승 선생님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겨서 다들 골똥히 고민을 하다가 찾아뵙고 질문을 드리면, 답과 더불어 어려운 문제 몇 개를 더 안겨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독창적이고 치밀한 논리전개를 할 수 있었고, 배고프고 힘들 때 안겨주신 피자와 간식들 덕분에 연일 이어지는 격론으로 인한 내부의 불평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든든한 지도교수님이 계시는 LES는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의실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 외에 다양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LE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



경제학부 동아리 활동모습



▲ LES지도교수 이상승 교수님과 동아리 멤버들



▲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발표를 준비하는 멤버들



편집 후기

석 병 훈 (경제학부 96학번)

경제학부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6개월간 경제학부소식지 편집을 담당했던 석병훈 조교입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을 떠나게 되어 마지막으로 동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제학부소식지를 보다 알차게 꾸미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새로 편집을 맡은 유원석 조교에 의해 경제학부소식지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문들께서 앞으로도 경제학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에게 경제학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이준구 교수님과 소식지 편집업무를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김영식 교수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내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유 원 석 (대학원 박사과정)

안녕하십니까! 석병훈 조교의 뒤를 이어 새로이 경제학부소식지의 편집을 담당하게 된 유원석 조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전임 석병훈 조교의 노력의 결실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봉사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학부 소식지를 보다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경제학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아직 인적사항을 보내주시지 않은 동문이나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아래 사항을 작성하시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을 보내 주시면 금년 6월로 발간 예정된 제15호의 동창 소식란에 게재하겠습니다. 보내시는 방법은 Fax, E-mail, 우편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E-mail로 보내실 때는 경제학부 홈페이지 (<http://econ.snu.ac.kr>) 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하면 경제학부 소식지를 on-line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 명		입학년도, 학과	
주 소			
직 장 명		직 위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소	

알리고 싶은 소식 :

(동문 여러분 개인의 신상 변화 뿐만 아니라 동기회 소식이나 모임 등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151-742
경제학부 소식지 담당자 앞

brhams@snu.ac.k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SCHOOL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 (02)-880-6359, 6360, 6361

FAX : (02)-886-4231

<http://econ.snu.ac.kr>

E-mail : brhams@snu.ac.kr

〈경제학부 소식지〉 제15호

발행일 2006년 7월 25일 / 발행인 이영훈 / 편집인 김영식 / 편집 석병훈, 유원석